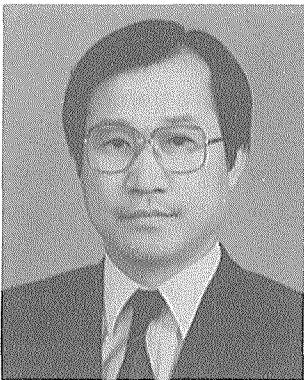


'92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韓 峻 皓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I. 최근의 에너지소비동향과 절약의 필요성

80년대 후반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사회 전반에 걸쳤던 호화사치풍조와 저에너지 가격정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88~'90 기간중 연평균 11.1%의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석유류는 19.2% 증가율로 명예스럽지 않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약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수입액도 88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92년도에는 작년 대비 23% 증가한 16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수지적자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원천적인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인 「'92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시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I. '92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1. 목표 및 추진방향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서 수립된 '92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은 올해를 에너지 소비 10% 절약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내수용 수입물량 증가율을 10~12% 수준으로 억제하고 전력의 여름철 최대수요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일부 규제와 유인시책을 병행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에 주력하며 에너

지절약의 생활화를 통해 절약시책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부문별 추진계획

금번 정부에서 수립한 「'92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상의 추진계획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부문

에너지절약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연간 연료 5,000TOE 이상 또는 전기 2,000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동자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종합에너지수급체계(Total Energy System) 구축을 위해 올해안에 지역별 가용에너지원 파악과 지역단위 에너지 수급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92년중 1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함께 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각 부처·기관별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의 적극 활용이 가능토록 기술개발사업과 보급사업의 연계지원을 강화기로 했다.

특히 개발된 고효율기기의 보급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92 상반기중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목표효율 및 최저효율 기준제도」 및 「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고효율 전기사용기기에 대하여는 한전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효율기기에 대한 사용의무화 또는 정부의 우선 구매제도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2년중에 5~6개의 에너지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동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며 절약전문기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새질서·새생활 및 씹음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에너지절약축전대회 개최를 통해 절약분위기 확산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2) 산업부문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을 목표로 공업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확대와 각 공장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우선 92년중 3개 공단에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관리진단을 강화하여 '92년중 25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진단을 실시하고 55개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유료진단을 통하여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철강, 요업, 석유화학, 섬유, 제지등 5개 업종(약 300개업체)에 대한 「에너지지원단위 목표관리」를 통해 에너지다소비업종에 있어서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으며 절약효과가 10% 이상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공정개체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자금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석유소비절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석유화학용 나프타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아스팔트 공급량도 생산·수입능력수준으로 감축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최대수요의 절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0kW 이상인 266호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일일수요관리를 하도록하고 수급조정 요금제 및 하계휴가 요금제의 개선보완, 전기손실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진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송부문

최근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승용차의 주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의 소비는 매년 30%씩 급증하고 있어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92년도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은 자동차

10부제운행, 승용차 연비향상, 경제운전기법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난해소, 환경개선측면에서 효과가 큰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운동을 전개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은 2월 1일부터 솔선하여 실시토록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승용차연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소형승용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용승용차 구입시 경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며 경승용차에 대한 높은 연비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10부제운영등 자동차 사용상의 강제적인 제한 조치가 어려우나 에너지소비 비중이 큰 버스, 화물트럭의 상용차와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경제운전기법 보급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지역난방방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분당, 평촌등 신도시와 과천, 서초동 기존 주택에 대해 '92년말까지 약 21만 가구에 지역난방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석유사업기금에서 6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서민소유 단열개수 주택에 대해서는 92년중에도 30억원의 주택 단열개수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약 1,000호를 대상으로 주택의 단열개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준공검사에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자재의 효율향상 및 규격화는 관계부처와 협의의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백화점, 호텔등 전기다소비건물 40개소를 대상으로 하계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건물에 있어서 빙축열 및 가스냉방기기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아울러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운

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금년 여름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절약의식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92 에너지절약추진계획』에 담겨 있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에너지관련 경비를 10% 절감하기 위해 승강기 운행제한, 실내등 절약운영등을 추진하고 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승용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신규업무용차량의 경우 1,000cc 미만의 소형차를 구입토록 하되 잠정적으로 '93년까지는 1,300cc 이하의 소형차를 구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실태조사 및 에너지 관리진단을 통해 공공건물의 에너지손실 요인을 도출·시정토록 하며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시 에너지절약부문 배점을 상향조정토록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III. 맺는말

동자부는 '92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를 언론사, 경제단체, 소비자단체등을 포함하여 확대개편토록 하여 지난 1.29일 첫 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에너지절약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실무대책위원회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의식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가 및 전력요금등의 에너지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실제로 절약을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망각된 결과 이제는 에너지과소비추세가 국민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망각의 강」을 뛰어 넘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